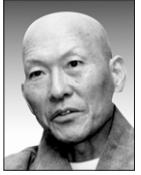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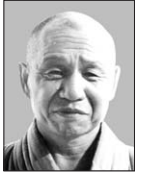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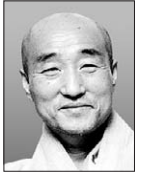
일주 문



맑고향기롭게, 북한동포돕기 성금 '맑고향기롭게' 회주 법정 스님은 7월 7일 북한 주민들의 식량난 해소를 위해 국제구호단체 한국 JTS에 성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



신홍사 운전기사불자회 창립 속초 신홍사 주지 오현 스님은 7월 9일 신홍사 포교당 원각사에서 '신홍사 운전기사불자회 창립대회'를 봉행했다. (033)636-7044



군산 공군부대 호국법회서 법문 조계종 군종교구장 일면스님은 7월 27일 군산 공군 38전대 호국 군성사에서 열리는 '부대안전 기원 및 초대주지 취임법회'에서 법문한다.



어린이 경제교실 열어 인덕원 이사장 성운 스님은 7월 21~25일 매일 오전 9시 30분부터 3시간씩은 평구립도서관에서 어린이 경제교실을 연다. (02)385-1671



'불광장학회' 장학생 모집 서울 불광사 회주 지홍 스님은 '불광장학회'를 설립, 7월 20일까지 장학생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초등~대학원생이며 총 규모는 2000만원이다. (02)417-2551



대승종 총무원장 도일스님 취임법회 대승종 총무원장 도일 스님은 7월 15일 5시 엠버서더호텔 2층 대연회장서 열린 취임법회에서 취임했다.



주경 스님, 환경위원장에 선출 서산 부석사 주지 주경 스님은 6월 30일 조계종 총무원에서 열린 제4기 환경위원회 1차 회의에서 환경위원장에 선출됐다



성북장애인복지관 개관1주년 행사 성북장애인복지관 관장 현과 스님은 7월 11일 성북장애인복지관 5층 강당에서 개관1주년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미안마불교대책위 의류지원 1차 발송 미안마불교대책위원회 윤천수 위원장은 7월 16일 오후2시 중앙신도회관에서 미안마 주민에게 의류를 지원하는 1차 발송행사를 갖는다. (02)733-7277



중국·미얀마 구호성금 전달 불교TV 구분일 사장은 7월 4일 총무원장 지관스님을 예방, 미얀마 태풍 참사자와 중국 쓰촨성 지진 참사자의 구호를 위해 모은 성금 4370만여 원을 전달했다.

“불자라는 틀로 양국간 교류 활발해지길”



“남방불교와 대승불교는 한데 어우러지기 힘든데 이렇게 한데 모여 법회를 연 것은 모두 부처님의 인연입니다. 불자라는 큰 틀로 양국

봉은사에서 법문, 캄보디아 대종정 텡봉 스님

간 교류가 활발히 이뤄지길 바랍니다" 캄보디아 대종정 텡봉 스님은 7월 6일 서울 봉은사(주지 명진)에서 열린 초청법회에서 크메르루주 정권에 의해 파괴당한 불교를 재건하기 위해 한국불자들의 도움을 당부했다. 이날 법회는 전체인구 83%가 불교신자인 캄보디아불교와 상호협력력을 강화하고 텡봉 스님이 추진하고 있는 불교학교건설과 학교아동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법회에서 텡봉 스님은 "한국불자들이 캄보디아 불교 및 국가발전을 위해 큰 성원을 보내줘서 감사하다"며 "현재 이러한 성원에 힘입어 앙코르와트가 자리한 씨엠릿에는 한국어 학교가 5군데 설립되는 등 양국 경제교류, 문화발전에 큰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이날 번역을 맡은 린사로 스님을 지목하며 "그 증거로 캄보디아 한국어학교와 한국어학당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한국에서 불교를 공부하는 린사로 스님이다"고 말했다. 텡봉 스님은 캄보디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을 일일이 나열하며 "캄보디아 경제에 있어

서 한국기업의 진출뿐만 아니라 매년 240만 명에 달하는 한국관광객도 큰 힘이다"며 "많은 불자들이 캄보디아를 찾아 큰 힘이 되어달라"고 부탁했다. "봉은사의 장엄한 불사는 찬란한 시대의 앙코르와트 같다"고 말해 큰 박수를 받은 텡봉 스님은 "우리는 하나이므로 여러분 마음이 저의 마음이고, 저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이다. 여러분을 위해 항상 기도하겠습니다"고 법문해 청중들의 감동을 자아냈다. 법문에 이어 캄보디아 학교 무료급식을 지원하기 위한 봉은사의 보시금 전달과 텡봉 스님의 답례선물 증정식, 봉은사 어린이 합창단의 음성공양이 있었다.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은 캄보디아 대종정 텡봉 스님이 주석하고 있는 왓 우날롬 사원에 답방하기로 약속했다. 한편 텡봉 스님은 7월 11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하고 한국과 캄보디아 불교 교류확대를 요청했다. 노덕현 기자 chavala@buddhapia.com

“자선활동으로 희망을...”

생명나눔 환우 9명에게 온정의 손길

(사)생명나눔실천본부(본부이사장 일면)는 7월 8일 오후 1시 생명나눔 6월의 환우로 선정된 송희진(여·26세·다발성경화증) 외 9명에게 총 2,325만원의 치료비 지원금을 전달했다. (사)생명나눔실천본부와 월간 <불교와 문화>, BBS '거룩한 만남', '니르바나 2007년 소아암환자를 위한 음악회'가 자선활동을 벌여 맺은 결실이다. 1년간 모금활동을 벌여 온 보현사(주지 일관) 신도회 '아름다운 동행'은 각각 신경성 난청을 앓고 있는 장건우(남·4세), 소아암을 앓고 있는 김예린(여·6세), 신장암을 앓고 있는 김민석(남·9세), 강직성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윤정찬(남·12세),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 문수환(남·6세) 총 5명에게 각각 100만원의 치료비를 전달했다. 또한 이명염의 한 후원인은 만 14세 미만 소아 7명에게 10kg 쌀 20파대를 지원해 훈훈한 온정을 나눴다. 최고액 500만원을 지원 받은 6월의 환우 송희진씨는 뇌와 척수에 생기는 원인 불명의 질환인 '다발성경화증'을 앓고 있어 전담식에는 부친이 대신 참석했다. <불교와 문화> 모금을 통해 치료비 1백75만원을 지원받는 백승민(남·49세)씨는 척추손상과 간경화로 투병 중이다. BBS '거룩한 만남' 방송 환우 김은자(여·44세)씨는 심근경색증과 만성신부전을 앓아 750만원을 지

원 받게 됐다. 니르바나 2007년 소아암환자를 위한 음악회 모금액은 희귀난치성질환인 악성신생물(레테라시웨빙)을 앓고 있는 조영규(남·3세)군과 급성골수성백혈병을 앓고 있는 조우찬(남·10세)군에게 각각 200만원씩 전달됐다. 노덕현 기자



후원계좌 농협 053-01-243778(예금주:생명나눔) (02)734-8050 가연숙 기자

“학교 내 종교 학생이 선택 해야”

강의석씨 대법원 상고이유서 제출

“학생의 학교선택권이 없고 종교사학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교육현실에서 이번 사건은 종교의 헌법적 가치, 정교분리의 원칙, 교육의 중립성 등 중요한 선험적 의미를 지니므로 원심을 파기되어야 한다.” 학교내 종교자유를 요구하며 학교법인 대광과 법적 대치중인 강의석씨가 7월 7일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며 이와 같

이 주장했다. 상고이유서 제출은 강의석씨에게 손해배상 패소판결을 내린 5월 8일 항소심에 불복 대법원 상고판에 따른 것이다. 상고이유서 제출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박광서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공동대표, 이석태 변호사를 비롯한 시민인권단체와 변호인단이 함께 참여했다. 기자회견에서 강의석씨는 “종교사학도 교육기관으로서 공교육 범주에 속합니다. 고등법원의 2심 판결은 종교사학의 공교육 역할보다 종교단체로서의 성격을 인정해 학생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 습니다”라고 상고이유를 밝혔다. 노덕현 기자

한마음선원, 중국·미얀마 구호성금 전달



인양 한마음선원 주지 혜원 스님은 7월 4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 미얀마 태풍 참사자와 중국 쓰촨성 지진 참사자의 구호를 위해 사부대중이 모은 성금 2540여 만원을 전달했다. 김성우 기자

김태영 합참의장 군분총회장 취임 축하연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일면)는 7월 9일 국립화관태극관에서 김태영 합참의장 군분총회장 취임 축하연을 열었다. 이날 축하연에는 임종민 육군총장, 강경관 전연참사부사령관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각현 스님·황순일 교수 불이상 수상



제23회 불이상 시상식 제23회 불이상 시상식은 7월 5일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렸다. 불이상 심천본회는 연꽃마을이 시상 각현 스님, 학술분야는 동국대학교 인도학과 황순일 교수가 각각 선정됐다. 노덕현 기자

종로노인복지관 적십자간호대학과 협약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광)은 적십자간호대학과 7월 8일 협력기관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종로노인종합복지관 관장 정광스님, 적십자간호대 김모임 학장 등 내외 인사 30명이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매봉산 고성사 대웅전 기공식



매봉산 고성사(주지 고성)는 7월 6일 대웅전 기공식 및 시리탑 정안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종단 소원스님과 사부대중 2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주지 고성 스님은 “돈독한 신심으로 원을 세워 불사가 시작될 만 큼 더욱 정진하자”며 법문했다. (06)977-0882 손범천 대구지사장

내몸내가 고치는 한국전 통따 주기 강좌(스님반)안내

1. 한국전통따주기란

우리 민족 조상으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민간 따주기로써 예를 들면, 급제 시 업지손톱 뿌리 밑을 비늘로 따주기를 하면 신기하게도 금방 내려옵니다. 온 몸을 이렇게 따주기로 낮게 하는 민족 고유의 슬기로운 자신 건강관리 비법입니다.

2. 신비의 전통따주기 특징

가. 신경을 자극하고, 탁한 피를 맑게 하며, 부족한 피를 생성 시킵니다. 나. 월 1회 기본 따주기로 병 예방 및 건강관리 합니다. 다. 뼈 부러진 곳과 수술한 부위를 제외하곤 모두 적용됩니다. (상기병, 혈압, 당뇨, 편도, 뒷머리 통증, 수절증, 탈모, 기억감퇴, 이명, 축농증, 감기, 안면풍, 여드름, 입술 부르름, 버짐, 백반, 목, 어깨, 가슴통증, 협심증, 신경성, 편마증, 정신착란, 우울증, 공포증, 심장혈관, 스트레스, 적병(화병), 간장, 신장, 위장, 폐장, 신장, 담, 명문, 소장, 비장, 대장, 방광이 나쁜 자, 자손 얻기, 검은 피부, 위경련(제한), 허리, 다리, 좌골, 관절염, 변비, 냉병, 생리불순, 치질, 정력증강(회춘), 병예방 따주기, 담배 끊기, 술 줄이기, 神氣 있는 자, 엘보우, 병명이 나오지 않는 자, 피가 부족한 자, 갑자기 기력이 저하된 자, 하지정맥 등) 라. 따주기를 접한 날부터 물이 낫기 시작 합니다. 마. 비장만 따도 내 병의 반을 낮게 할 수 있습니다. 바. 평생 잊지 않는 위치 양기에 10일이면 충분 합니다. 사. 간단하고,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3. 따주기 활용

신도포교/ 자신 건강관리/ 따주기 사회봉사/ 건강 복 짓기 / 생활속 비상 따주기 (풍, 급제, 기절, 경기 등)

4. 강좌 세부내용 (한번 수강으로 이론, 실습 모두 학습)

- 가. 1일자 (토요일 09:00~22:00)
- 우주의 기운
- 인연과 탄생, 명부전, 병
- 전통따주기 개요, 인체의 구조
- 5행으로 본 인체

- 전통따주기, 각 따주기
- 신비한 비장따주기
- 마음의 세계(마음 10단계)
- 피가 생성되는 기초따주기
- 병 예방 비법
- 실습
나. 2일자 (일요일 09:00~13:00)
- 수치의 비밀
- 대운, 연운, 월운, 일운 비법
- 작명 비법
- 궁합 비법
- 수상 및 관상 보강
- 풍향, 절의 및 달법, 지도사수료증수여

4. 강좌 일정 및 장소

- 가. 강사: 한국전통따주기연구회장 (교수, 공학박사)
나. 일정 및 수강료 (스님반)
(1) 일 정: 2008. 7. 26(토) 오전 9시 ~ 7. 27(일) 오후 1시 (금요일 저녁까지 도착)
(2)수강료: 34만원(숙박도방 숙박 및 자연식단 제공, 따주기 도구 및 비법교재 등 일체 제공)
* 강의개시 3일전까지 선착순 예약자에 한해 수강 (선착순 10명)
다. 장소: 송남청양교육장
라. 준비물: 편한 복장 및 개인 세면도구
* 문의처: 041)944-2237, 010-3234-2237 (www.ddajuki.re.kr)

스님! 빙의로 고통 받는 중생을 구해 주세요

전생, 빙의, 자기 최면, 치료최면 (최면 시술사 과정)

교육일: 7월 19일 토요일반 • 교육시간: 오후 1시

교육기간: 6주(24시간) • 모집인원: 선착순 10명 • 교육비용: 60만원 • 교육대상: 스님, 포교사, 불자

특기사항

- 1. 10명의 소수 정예 엘리트 교육
2. 6주 24시간의 최단기 집중 현장 교육
3. 상상할 수 없는 최소의 교육 훈련비
4. 개인 교습식의 일대일 교육, 책임 교육
5. 현장에서 바로 활용 할 수 있는 실전 교육
6. 새로 개발된 테크닉 수시로 전수하는 평생 교육

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유일한 곳

수행과 포교 또 중생 구제에 바쁜 스님들께 귀의 합니다. 소송은 스님들께서 시간에 쫓기시고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한 스님들의 사정을 너무 잘 알기에 모든 거품을 빼고 최단기, 최소 교육비로 보시 하고자 합니다. 소송은 자리타라의 정신과 회향하는 마음으로 본 강좌를 만들었습니다. 마하 반야 바라밀 - 무초 정락 합장 -

(사)유마 정신 건강 최면 연구소

서울 지하철 1호선 종로 3가역 2번출구 앞 ☎ 02)763-0661~2

★ 최면을 배우시고도 시술을 못하시는 분, 자기최면이 안되는 분 개인지도 ★